

결국 금리와 주주환원책이 중요하다는 말의 반복

KOSPI 6,259pt(-0.6%), KOSDAQ 799pt (-0.3%)

① 해외 상황 금리 불안감에 다음주 물가지표 경계감

- 전거래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나스닥 -0.1%, S&P500 -0.2%, 다우 -0.9%,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3%). 알파벳 250억 달러 회사채 발행,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반등, 쿡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등이 겹치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 4.7% 수준까지 상승 재개. 시장금리 부담에 지수 약세 마감. 샌디스크와 WDC 실적 이후 메모리 업종의 높아진 기대치와 가격 중심 성장 우려 부각. 하지만 견조한 수요와 낙폭 과대 인식에 반등

② 수급 순매수 하는 줄 알았던 외국인, 양거래소 합산 1조원 이상 순매도 전환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0.3조, 외국인 -0.9조원, 기관 +0.6조원 순매수. KOSDAQ은 개인투자자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졌으나 6거래일 연속 상승에는 실패, 약보합 마감

③ 특징업종 테마별 순환매

- **1) 2차전지:** 포스코퓨처엠의 LFP 양극재 장기공급 추진과 최근 낙폭 과대 인식에 맞물리며 KOSDAQ 순환매가 2차전지로도 온기 확산 SK이노베이션(+10.8%), 삼성SDI(+7.5%), LGES (+4.4%), **2) 정유:**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제한안 공개로 국제유가 반등. 정제마진, 제고평가 이익 개선 기대 재차 부각 **3)편의점:** BGF리테일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폭염 특수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까지 확인되며 실적 모멘텀 부각

④ 이벤트 시장금리 영향 미칠 고용 & 물가지표 큰 거 온다

- 1) 美 고용보고서(8/7 21:30) 2) 美 7월 CPI(8/12 21:30), PPI(8/13 21:30)

⑤ 상황 결국 금리와 주주환원책이 중요하다는 말의 반복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6%, 0.4% 하락.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감 속 유가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매 재개. 결국 시장금리 높아지는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지 않으며 이는 현재 KOSPI 상승 주체로 활약해야할 외국인의 이탈을 의미.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매수세 강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장중 순매도 전환함에 따라 지수 전강 후약 막판 소폭 반등의 흐름. 결국 주말 이란-미국 협상과 다음주 소비자/생산자 물가 가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 지대하기에 이에 따른 경계심리 반영되며 지수 상단 제약되는 흐름
- 삼성전자 강보합에도 SK하이닉스 4.8% 하락하며 금일 시장의 트러블메이커로 등극. 주주환원 발표 지연, 엔비디아 공급단가 협상 루머. 2027년 HBM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 하회할 것이며 SK하이닉스가 GPU 확보 위한 전략적 가격 제시했다는 관측 제기, ASP 기대감 후퇴(조금 전 사측에서 강력하게 부정하며 이 우려는 해소될 것) 등 여전히 시장 우려자극하는 소식. 장마감 이후 SK하이닉스 분기 배당 발표 및 3분기 내에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 것이라고 공시. 이는 기존 연내 제시(시장 실망감 야기)보다 당겨진 일정으로 NXT서 주가 반등 야기. 강력하고-투자자 만족시킬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길 기대
- KOSPI 대형주 -0.7% 하락에도 중형주 +0.6%, 소형주 +0.8%. 중소형주 확산도 지속. KOSDAQ에도 지속해서 우호적인 모멘텀 임. 실적 시즌 아직 남아 있으나 엔비디아(8월 26일) 정도 제외하고는 큰 실적 모멘텀 부재하다는 점 역시 주주환원과 금리 안정 외에 대형주 강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함을 시사. 다만,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발표하고 금리도 안정된다면 대형주 랠리 재개될 전망.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극단적 수급 쓸림은 없을 것이기에 여전히 KOSDAQ의 120일선 향한 정상화 여정은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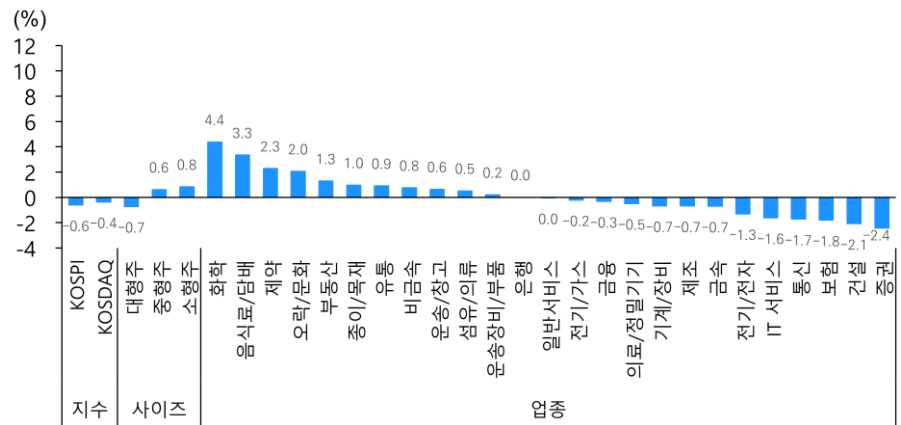
- 전략)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8월 7일 종가 기준 5.1배.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12개월 후행 PBR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ROE 수준 고려시 절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다 라는 말은 이제 진부해짐. 결국 기업 실적이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는가, 주주환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시장금리 안정화 여부와 더불어 보고 있기 때문
-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가 회사채 발행과 외부 차입을 동반하는 자본집약적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시장금리 안정은 투자 지속성을 결정할 핵심 요건이라는 판단. 원/달러 환율 급격한 안정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 미미했던 이유. 금리 인상은 자본조달 비용과 요구수익률을 높여 Capex의 경제성을 낮추는 반면, 물가 및 국제유가 안정은 회사채 발행 부담 완화하고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따라서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와 미국-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여부가 장기금리 뿐 아니라 반도체 및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 KOSDAQ은 완만한 반등 추세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결국 금리와 주주환원책이 중요하다는 말의 반복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5,791	-1,028
외국인	-8,588	-2,540
개인	2,676	3,404
거래대금	243,047	52,346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